| 산업통상자원부 「제조업」르네상스 | 보도참고자료 | 보다나은 정부 |
|---|---|---|

**2019년 10월 11일(금) 10: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**

| 배포일시 | 2019. 10. 11(금) | 담당부서 | 소재부품총괄과 |
|---|---|---|---|
| 담당과장 | 박동일 과장(044-203-4260) | 담 당 자 | 이선혜 서기관(044-203-4267) |

# 日 수출규제 100일, 민관공조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대책 본 궤도에 올라

## -'그동안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 성과와 향후계획' 경쟁력위원회 보고-

▸ 3대 품목 등 수입국 다변화·국내 생산확대, 민관공동 노력으로 성과 가시화

▸ 향후에도 현장 중심으로 가시적 성과가 확산되도록 세심하게 실행 역점

□ 정부는 10.11(금) 개최된 「**제1차 소재·부품·장비 경쟁력위원회**」에 **'그동안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 성과와 향후 계획'을 보고**하였음

< 제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개최 개요 >

ㅇ (일시/장소) '19.10.11(금) 07:30~09:00 / 대한상공회의소
ㅇ (참석자) 경제부총리(위원장) 산업부 장관(부위원장), 관계 부처 장관, 민간위원

○ 경쟁력위원회 위원들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100일간 **대응 경과와 주요 성과**를 살펴보고, 특히 지난 8.5일 발표한 **'소재·부품·장비 경쟁력 강화대책'**을 중심으로 **성과와 향후계획**을 **점검·논의**함

□ 정부는 지난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발표 이후 **즉각적으로 대응체계를 가동**하고,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해 **민관 공조로 적극 대비**해오고 있음

○ 대외적으로는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응하여, **WTO 제소**(9.11) 등 적극적 조치를 실행하고,



○ 산업측면에서는 일본의 **수출규제 3대 품목**은 **수입국 다변화, 자체기술 확보, 국내 생산확대** 등 민관 공동의 노력으로 대체 물량 확보, 국내 생산품의 공정투입 등 **가시적 성과**가 나타나고 있음

□ 위원들은 **수출규제품목의 신속한 다변화, 자체기술 확보, 대·중소기업을 포함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간 긴밀한 협력 가시화** 등 소재·부품·장비 경쟁력강화대책이 본 궤도에 올랐다고 평가하는 한편,

○ **소재·부품·장비 경쟁력 강화**가 제조업 전반의 혁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, **대외환경 변화와 무관**하게 **경쟁력 강화대책을** 지속적이고 일관성있게 추진키로 하였음

○ 아울러 현재까지 **직접적 피해는 없으나, 화이트리스트 배제**(8.28) 등 공급망 관련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므로, **현장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**하고, **문제발생시 즉시 대응**하는 체제를 가동키로 함

□ **日수출규제 이후 100일간의 주요 성과**는 다음과 같음

❶ **(민간의 공급안정성 강화) 주요 핵심품목은 국내외 대체품목이 실제 생산 공정에 투입**되고, **대·중소기업을 포함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간 긴밀한 협력이 강화**되는 등 **가시적 성과**가 나타나고 있음

○ 업계는 **美, 中, 유럽산 등 제품**을 공정테스트중으로, **불산액**의 경우 테스트 완료후 일부 제품을 **실제 생산에 투입**하고 있으며, **국내 공장 신·증설**을 통해 **생산물량 확대**를 추진하고 있음

○ 3대 품목 이외의 핵심품목에 대해서도 코트라 해외거점 무역관(38개소)을 중심으로 **수입국 다변화가 가능한 기업을 발굴**하고 있음

< 수입국 다변화 진행상황 >

| 품목 | 수요기업 | 대체국(기업) | 진행상황 |
|---|---|---|---|
| 불산액 | A社, B社, C社 등 | 중국(D社, E社) 등 | 일부 생산공정 투입 중 |
| 불화수소가스 | A社, B社 등 | 미국(F社) 등 | 제품 테스트중 |
| EUV 레지스트 | A社 등 | 유럽(G社) 등 | 제품 테스트중 |
| 로봇제어부품 | A社 등 | 유럽, 중국, 미국 등 | 제품 테스트중 |

< 국내생산 확대 진행상황 >

| 품목 | 수요기업 | 국내생산기업 | 진행상황 |
|---|---|---|---|
| 불산액 | A社 B社 C社 등 | H社 등 | 증설공장 가동 중, 신규공장 완공 |
| 불화수소가스 | A社, B社 등 | I社 등 | 신규공장 완공예정 |
| 불화 PI | C社, D社 등 | J社 등 | 신규공장 완공예정 |
| 실리콘웨이퍼 | A社, B社 등 | K社 등 | 공장증설 완공예정 |
| 블랭크마스크 | A社, B社 등 | L社 등 | 신규공장 완공 예정 |

○ 최근 **탄소섬유, 친환경차 부품** 등 핵심 소재·부품에 대한 **대규모 국내 투자가 발표**되어 민간의 투자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으며,

* (탄소섬유, 효성) 전주공장 추가증설을 위해 '28년까지 1조원 투자 발표(8.20)
* (친환경차 부품, 현대모비스) '21년 양산목표로 울산공장 신설을 위해 3천억원 투자 발표(8.28)

○ 전기차, 자율 주행차 등 미래 산업분야 핵심 소재·부품기술을 보유한 **해외 주요기업의 인수, 합작법인 설립도 진행중**임

* SK 실트론, 미국 듀폰 웨이퍼 사업부 인수 발표(9.10)
* 현대차, 미국 앱티브 테크놀로지스와 Joint Venture 설립 발표(9.23)

**❷ (정부의 공급 안정성 강화 지원) 정부는 핵심품목의 공급안정성 강화를 지원중**이며, **소재·부품·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속도감있게 추진중임**

○ **자체기술 확보** 및 **기술개발이 실제 생산으로 연계**될 수 있도록, **추경자금**을 통해 25개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공급기업과 **수요대기업이 함께 참여**하는 기술개발, 신뢰성테스트, 양산평가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,

* 기술개발(650억원, 40개사 참여), 신뢰성테스트(400억원, 280건), 양산평가(320억원, 132건)

○ 신속한 기술확보를 위해 **1.9조원의 예타면제를 확정**(8.20)하고, **복수형, 경쟁형** 등 **과감하고 혁신적인 기술개발 방식도 도입**(8.8)하였음

* (복수형)2~3개 수요기업의 사양(spec)에 맞는 맞춤형 기술개발 과제를 복수(複數)로 지원
* (경쟁형) 1~2년 경쟁적 개발 후 중간 평가를 통해 우수성과 기업에 후속 기술개발 지원

○ 기술이전, 공동기술개발, M&A 등 외부기술도입을 위한 **1,000억원 규모의 GIFT 2호 펀드** 운용사 선정절차에 착수하였고, **대규모 투자펀드 조성**을 **본격 추진 예정임**

* 성장지원펀드 2,000억원(금융위),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600억원(중기부) 등 '20년 정부안 편성



○ 또한, 정부는 **화학물질 취급시설 인·허가 기간을 단축**(75일→30일)하고, **특별연장근로 허용**(12개 사업장, 815명) 등 기업활동에 대한 밀착 지원을 강화함

* 「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·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」 개정(8.31 시행)

○ 2.5조원 규모의 인수금융 공급을 위해 **'해외 M&A·투자 공동지원 협의체'가 구성**(9.10)되었으며, 소재·부품·장비 핵심기술을 가진 **해외기업의 국내투자 성과**도 나타나고 있음

* 해외 M&A투자 공동지원 협의체 : 경제단체, 업종별 협회, 금융기관, 지원기관 등 총 14개 기관 참여
* 미국 장비회사 다社, 한국내 R&D센터 유치 결정(9월말)
* 미국 화학소재분야 라社, 반도체 소재개발 및 생산시설 투자 프로젝트 검토중
* 독일 소재분야 마社,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생산시설 투자 프로젝트 검토중

○ 한편, 7.22일부터 **민관합동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**•를 통해 기업의 현장애로 해결을 원스톱으로 지원중이며, 특히 총 921건의 자금애로 신청에 대해 **긴급경영안정자금 933억원,** 만기연장·신규대출 등 **경영애로 유동성 공급자금 1조 1,891억원** 등을 지원하였음

* 관계부처, 유관기관, 업종별 협회 등 총 32개 기관 참여

**❸ (그간의 대책에 대한 평가)** 3대 품목은 **수입국 다변화, 국내생산** 등 **민관 공동으로 발빠르게 대체물량을 확보중**이며, **정부와 민간의 신속한 공조**를 통해 **전방위적인 대응체계**를 가동하고 있음

* 일 수출규제 조치 이후 매주 1~2회 관계장관회의 개최(총 17회)

○ **수요기업과 공급기업간 협력의 중요성**에 대해 기업 스스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으며, 특히, **공급망 안정성 관점**에서 **국내 중소·중견기업과의 협력관계를 재정립해야한다는 인식**이 확산됨

○ **각 부처에서 추진하던 정책들**이 '소재·부품·장비 경쟁력 강화대책'을 통해 **부처간 긴밀한 협업하에 집중 지원**하는 체제로 전환됨

* 소재·부품·장비 관련 개별 부처 차원의 사업들을 특별회계로 통합 지원('20년 2.1조원 규모)하고, 범부처 정책수단을 포괄하는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발의(9.30)

○ 다만, 앞으로도 제조업 혁신과 미래 산업의 질적인 전환을 위해 **대외적인 여건의 변화와 관계없이** 소재·부품·장비 경쟁력 강화를 **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**할 필요성이 상존하며,

○ 화이트리스트 품목은 아직 직접적인 피해는 없으나, **현장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**하고 **문제발생시 즉시 대응**할 계획임

□ 정부는 이같은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, 향후 다음 사항을 중점 추진해나갈 계획임

○ 우선, '소재·부품·장비 경쟁력 강화대책'의 **75개 세부과제를 중심으로 철저히 이행점검** 해나갈 예정임

* 금일 점검 결과, 75개 세부과제중 23개 과제가 이행완료(31%)되었고, 나머지 52개 과제도 정상 추진중(69%)인 것으로 나타남

○ 소재·부품·장비 경쟁력 강화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·조정하는 컨트롤타워인 **'소재·부품·장비 경쟁력위원회'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부내에 실무추진단을 조속히 설치**할 계획이며,

○ **'소재부품장비 특별법'**은 기존의 일몰법('21년 일몰)을 **20년만에** 대상·기능·범위·방식·체계 등을 상시법으로 전면 개편하는 **전부개정안이 9.30일 발의**되었으므로, 신속히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국회와 **긴밀히 협조**해나가기로 하였음

< 소재부품특별법 개정 주요내용 >

| |
|---|
| ㅇ 산업육성 **상시법化**, **핵심전략품목** 선정 및 **특화선도기업** 집중육성<br>ㅇ **기술개발, 인력양성, 테스트베드, 특화단지** 등 全주기 지원 강화<br>ㅇ **기업 간 협력모델**에 자금, 입지, 규제특례 등 패키지 지원<br>ㅇ 수급안정을 위한 **긴급대응, 경쟁력위원회 및 특별회계** 신설 |

○ **기업간 협력모델 구축, 핵심품목에 대한 자체기술확보, 유망 소재·부품·장비기업 육성** 등 주요 대책이 **현장에서 가시적으로 성과가 창출되도록** 앞으로도 각 부처와 긴밀히 협조해나갈 계획임

○ **내년도 소재·부품·장비 예산**의 효과적 집행을 위해 **수요-공급 기업간 구매연계 중심의 사업기획을 최대한 금년내 완료**하고, 예산배정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임

* 정부전체 소재·부품·장비 예산 : ('19년) 8,327억원 → ('20년안) 2조 1,242억원



□ 금일 '제1차 소재·부품·장비 경쟁력위원회'에서 **성윤모 장관**은 "소재·부품·장비 경쟁력 강화는 **새로운 대한민국 산업 100년의 기틀을 다지는 일**로서 **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할 길**"임을 언급하고,

○ 도전을 기회로 만들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도록 소재·부품·장비 경쟁력 제고에 총력을 다할것임을 밝혔음

▸ **붙임.** 그동안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 성과와 향후 계획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총괄과 이선혜 서기관(☎ 044-203-4267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**붙임** 그동안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 성과와 향후 계획

# Ⅰ. 그간의 경과

## 1. 일본의 수출규제 개요

□ 일본 경제산업성은 7.1일 「외국무역법」상 수출관리와 관련, 對韓 수출에 대해 **엄격한 제도 운용을 실시하겠다는 계획** 발표

○ 3개 품목*을 포괄수출허가에서 **건별 허가 대상으로 전환**(7.4 시행)

* 불화수소, 레지스트, 불화 폴리이미드는 반도체·디스플레이 공정상 핵심 소재

○ **화이트국가(기존 27개국)에서 한국 제외**(8.28 시행)

* 기존 화이트국/非화이트국 구분체계를 A/B/C/D 4개 그룹으로 재분류, 한국은 B그룹
* 원칙적으로 전략물자의 對한국 수출시 개별허가 필요 (CP기업은 포괄허가 가능)

## 2. 국내 대응 경과

◇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즉각적으로 **정부대응체계를 가동**하고,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해 **민관 공조로 적극 대비**

□ **(대외적 대응)** 日측의 조치에 대해 **국제사회에 부당성을 지적**하고 설명하는 한편, **적극적 수출·통상 조치** 실시

○ **(국제공조)** 국제사회 지지 확보를 위해 **WTO 일반이사회**(7.24)등에서 금번 조치의 **부당성을 공론화하고,** 주요국 대상 **전략적 아웃리치 진행**

○ **(한일 양자 회의 등) 양국간 과장급 실무회의(7.12) 및 日 정부의 의견수렴 절차(7.1~24)**를 통해 日측에 금번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**철회 요구**

○ **(WTO 제소)** 일본 조치의 상세분석 및 증거자료 수집을 거쳐, **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에 대해 WTO 제소**(9.11)

* 일본의 WTO 협정 주요 위반사항: ① 최혜국 대우 원칙 위반, ② 수출제한조치의 설정 금지 의무 위반, ③ 정치적 이유로 교역을 자의적으로 제한



□ **(국내 산업 경쟁력 대응)** 소재·부품·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응대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신속하게 실행

○ **(산업현장 애로 지원)** 7.22일, 민관 합동으로 **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**를 가동하여 **기업애로 원스톱 지원**

* 산업부·기재부·중기부·금융위 등 11개 부처, KOTRA·무보등 21개 유관기관으로 구성

○ **(종합대책 수립)** 8.5일, **소재·부품·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**을 중심으로 R&D 혁신 대책 수립, '19년 추경자금 확보 및 '20년 1.9조원 예타면제 등 추진

< 주요 대책 현황 >

| 일자 | 대책 | 주요 내용 |
|---|---|---|
| 8.2 | 정부 R&D 추경예산 확보 | ▸추경자금 2,732억원을 25개 품목 기술개발 등에 투입 |
| 8.3 |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금융지원 | ▸만기연장, 유동성공급 및 소재·부품·장비 시설투자 지원 등 |
| 8.5 |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| ▸100대 품목 공급안정화, 기업간 협력모델 구축 등 |
| 8.28 |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| ▸핵심품목 선정 및 집중투자, R&D 전주기 장벽 해소 등 |
| 8.30 | 예타면제 | ▸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1.92조원 면제 |

- 특히, 정부는 소재·부품·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(8.5)을 **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을 탈피**하고, **산업 자체의 경쟁력 강화**를 위해 중점 추진중

< 대책의 주요내용 >

| | |
|---|---|
| **100대 품목 공급안정** | ・20+α → 1년내 공급안정화<br>・80+α → 3~5년내 공급안정화 |
| **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** | ・수요-공급기업間 건강한 협력 모델 구축<br>・기업맞춤형 실증·양산 테스트베드 확충<br>・민간의 생산과 투자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<br>・글로벌 수준의 소재·부품·장비 전문기업 육성 |
| **강력한 추진체계** | ・경쟁력위원회 설치·운영<br>・소재·부품·장비 특별조치법 전면 개편 |

◇ 일본 수출규제 조치 이후 10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**그간의 정책 성과를 점검**하고, **향후 범정부적 대응계획 마련**

◇ 소재·부품·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의 협력을 한층 더 제고하고 **현장에서 가시적 성과가 조기에 창출**되도록 **역량 집중**

## Ⅱ. 경쟁력 강화 대책의 주요 성과

◇ 특정국가에 대한 의존을 탈피하고, **자체기술력과 공급안정성 확보, 산업자체의 경쟁력 강화**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

◇ 민·관의 긴밀한 협조하에 예산, 금융, 세제, 규제특례 등 **국가적 자원과 역량을 총력 투입**하는 특단의 대책 추진

### 1. 공급안정성 강화의 성과

○ **(수입국 다변화) 업계는 3대 품목에 대해 美, 中, 유럽산 등 제품을 공정 테스트중**이며, **불산액**의 경우 테스트 완료후 **일부 생산공정에 투입 중**

- 3대 품목 이외의 핵심품목에 대해서도 코트라 해외 거점 무역관(38개소) 중심으로 **수입국 다변화 가능 기업 발굴**(7개 기업 지원)

* (예) 밸브 관련 가社에 6개국 32개처, 웨이퍼 관련 나社에 9개국 34개처 등 7개 기업에 수입국 다변화 가능기업 발굴·제공 완료(3개 기업 요청 관련 조사 중)

< 수입국 다변화 진행상황 >

| 품목 | 수요기업 | 대체국(기업) | 진행상황 |
|---|---|---|---|
| 불산액 | A社 B社 C社 등 | 중국(D社, E社) 등 | 일부 생산공정 투입 중 |
| 불화수소가스 | A社, B社 등 | 미국(F社) 등 | 제품 테스트중 |
| EUV 레지스트 | A社 등 | 유럽(G社) 등 | 제품 테스트중 |
| 로봇제어부품 | A社 등 | 유럽, 중국, 미국 등 | 제품 테스트중 |

○ **(국내 생산)** H**社**는 **불산액** 기존공장을 증설·가동중이며 완공된 **신규공장이 정상 가동되면 생산능력 2배 확대 가능**

- A社, C社는 H社 불산액 테스트를 완료하고 일부 공정에 투입중

- I社는 **불화수소가스** 신규 공장 완공 예정이며, J**社**는 **불화 폴리이미드(PI) 신규 공장 완공 예정**

< 국내생산 확대 진행상황 >

| 품목 | 수요기업 | 국내생산기업 | 진행상황 |
|---|---|---|---|
| 불산액 | A社 B社 C社 등 | H社 등 | 증설공장 가동 중, 신규공장 완공 |
| 불화수소가스 | A社, B社 등 | I社 등 | 신규공장 완공예정 |
| 불화 PI | C社, D社 등 | J社 등 | 신규공장 완공예정 |
| 실리콘웨이퍼 | A社, B社 등 | K社 등 | 공장증설 완공예정 |
| 블랭크마스크 | A社, B社 등 | L社 등 | 신규공장 완공 예정 |



○ **(민간투자 확대) 탄소섬유***(효성, 8.20)**, 친환경차 부품****(현대모비스, 8.28) 등 핵심 소재·부품에 대한 대규모 투자 움직임

* '20년부터 전주공장 추가증설(~'28, 1조원 투자), ** '21년 양산목표로 울산공장 신설(3천억원 투자)

○ **(해외기업 인수 등)** 전기차, 자율주행차 등 미래 산업분야 핵심 소재·부품기술을 보유한 **해외 주요기업의 인수, 합작법인 설립**도 진행중

* SK 실트론, 미국 듀폰 웨이퍼 사업부 인수 발표(9.10)
* 현대차, 미국 앱티브 테크놀로지스와 Joint Venture 설립 발표(9.23)

### 2. 정부의 공급 안정성 강화 지원

○ **(자체기술 확보)** 레지스트 등 25개 품목은 **추경 R&D**(650억원) 진행중, **수요대기업이 참여**하여 기술개발을 실제 생산으로 연계

- 공급기업이 개발한 품목을 수요기업이 생산라인에서 테스트하는 양산평가 수요 증가 등 **수요-공급기업간 협력 움직임이 확대**

* 예) 반도체 양산평가 84건, CNC 등 기계분야 양산평가 20건 등

○ **(신속 인허가)** 정부는 **화학물질 취급 인허가기간 단축**(75일→30일) 등 **화관법** 고시개정(8.31 시행), **특별연장근로 인가**(12개 사업장, 815명) 등으로 기업의 생산과 연구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

* 수급위험 대응을 위해 3건에 대해 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, 화학 인허가 Fast-Track 진행중

○ **(해외투자 유치)** 국내 투자의향이 있는 소재·부품·장비 분야의 해외기업에 대해 국내 투자를 적극 유도하여 국내 투자가 가시화

* 미국 장비회사 다社, 한국내 R&D센터 유치 결정(9월말)
* 미국 화학소재분야 라社, 반도체 소재개발 및 생산시설 투자 프로젝트 검토중
* 독일 소재분야 마社,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생산시설 투자 프로젝트 검토중

<소재부품장비에 특화한 유치활동>

| | 일반적 외투유치 | 소재부품장비 외투유치 |
|---|---|---|
| 타겟기업 발굴 | 해외투자자의 투자의향 신고에 따른 수동적 대응 | 수요기업 유관기관 산업 전문가 등 의견을 반영하여 중점품목·기업을 집중 타겟팅 |
| 유치활동 | 1:多의 라운드테이블 위주 | 투자유치 제안서 先제시, 1:1 심층협상, 정부·지자체 등 활동 집중 |
| 인센티브 | 특정 업종/분야에 대한 우대 인센티브 부재 | 일본 수출규제 관련 소재부품 투자에 한해 현금지원 한도 확대 추진 |

○ **(애로해결)** 현장애로 발생시, **민관합동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**(7.22~, 관계부처, 유관기관, 업종별 협회 등 총 32개 기관 참여) 등을 통해 원스톱 해결 지원

- 핵심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의 총 921건 자금애로 신청에 대해 **긴급 경영안정자금 933억원,** 만기연장·신규대출 등 **경영애로 유동성 공급 자금 1조 1,891억원** 등 지원

○ **(물량확보)** 화이트리스트(159개) 품목에 대해 **보세구역내 저장기간 연장** 등 재고확충 지원(891건), **신속통관**(15,326백만불) 등 물량확보 지원

### 3. 그간의 대책에 대한 평가

❶ 3대 품목은 **수입국 다변화, 국내생산** 등 **민관 공동으로 발빠르게 대체물량을 확보중**이며, 기본적인 공급 안정성 유지중

○ **정부와 민간의 신속한 공조**를 통해 **전방위적인 대응체계**를 가동

* 일 수출규제 조치 이후 매주 1~2회 관계장관회의 개최(총 17회)

❷ 대·중소기업을 포함하여, **수요기업과 공급기업간 협력의 중요성**에 대해 기업 스스로 새롭게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

○ 특히, 기업들은 특정국에 의존하는 분업구조가 가지는 위험성을 인지하고, **공급망 안정성 관점**에서 **국내 중소·중견기업과의 협력 관계를 재정립해야한다는 인식**이 확산

* 25개 핵심품목 관련 기술개발·실증·양산평가 등 2개 협력모델에 211개 사례 발굴·지원 중

❸ **각 부처가 독립적으로 추진하던 정책들**이 '소재·부품·장비 경쟁력 강화대책'을 통해 **부처간 긴밀한 협업하에 집중 지원**하는 체제로 전환

* 소재·부품·장비 관련 개별 부처 차원의 사업들을 특별회계로 통합 지원('20년 2.1조원 규모)하고, 범부처 정책수단을 포괄하는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발의(9.30)

❹ 앞으로도, 제조업 혁신과 미래 산업의 질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**대외적인 여건의 변화와 관계없이** 소재·부품·장비 경쟁력 강화를 세심하게 점검하면서, **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**할 필요성 상존

○ 화이트리스트 품목은 아직 직접적인 피해는 없으나, **현장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**하고 **문제발생시 즉시 대응 필요**



## Ⅲ. 대책 과제별 세부 성과

**< 요 약 >**

□ **전체 10개 관계 부처의 총 75개 세부 이행 과제 점검**

* 산업 35, 기재 7, 중기 6, 금융 6, 환경 6, 과기 3, 고용 3, 관세 3, 국토 2, 공정 2, 행안 1, 특허 1

□ **점검 결과, 23개 과제 이행완료(31%), 52개 과제 정상추진 중(69%)**

< 75개 세부 과제 현황 >

( ) 완료

| 구분 | 100대 품목 공급안정 | | 경쟁력 강화 | | | | 추진체계 구축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20대 품목 | 80대 품목 | 협력모델 | 실증양산 | 민간지원 | 기업육성 | |
| 과제수 | 10(5) | 28(12) | 9(2) | 5 | 13(2) | 3 | 7(2) |

○ **(완료과제) 행정 지침 시달, 규정·고시 개정** 등 즉각 조치 가능한 과제 중심으로 이행 완료 (⇒ **후속 행정지원은 계속**)

- **(지침 시달)** 신속통관, 보세구역 저장기간 연장, 특별연장근로 인가 등
- **(규칙·고시 개정)** 화평법 시행규칙, 화관법 고시, 산업기술 R&D 규정, 등
- **(정책금융 지원)** 대출보증 만기 연장, 신규자금 공급, 시설투자비 융자지원 등

○ **(정상추진과제) '19년 추경사업**은 조기집행 노력중(실집행 68%)으로 **10월중 대부분 집행 완료**될 예정

- **'20년 예산, 법 개정 등이 수반되는 과제**는 **내년초 즉시 시행** 가능토록 입법 대응 및 신규사업 기획 추진중

- **('19년 추경)** 20+α 품목 기술개발, 신뢰성·양산평가, 창업기업 지원 등
- **('20년 예산)** 80대 품목 기술개발, 우수기술 협력사 전수, 자립화 펀드 조성 등
- **(법 개정)** 소재부품 특별법, 조세특례제한법, 지방세특례제한법, 화관법 등

⇨ **全 과제가 조속히 이행되고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·관리**

## 1. 100대 품목 조기 공급안정성 확보

### ① 20대 품목*은 즉각적인 공급안정화 조치와 조기 기술개발 병행 추진

* 수급위험이 크고 전략적으로 중요하여 기술 확보 시급한 품목(日 수출규제 3개 품목 포함)

○ **(물량 확보)** 화이트리스트(159개) 품목에 대해 **보세구역내 저장기간 연장** 등 재고확충 지원(891건), **신속통관**(15,326백만불) 등 물량확보 지원

○ **(국내 생산)** 日 수출규제 품목의 국내 생산 대체를 위한 **공장 신·증설시 각종 인허가 간소화***로 **공장 건설 기간 대폭 단축****

* 화학물질 인허가 기간 단축(75일→30일), 특별연장근로 인가(12개 사업장 815명) 등
** 바社는 신속 인허가 통해 불산공장 조기완공(신증설 인허가 기간 약 3개월 단축)

○ **(수입 다변화)** 對日 수입기업의 수입국 다변화 지원을 위해 코트라 해외 거점 무역관(38개소)이 **해외 공급가능 업체 조사 및 발굴**(신청 10건, 발굴 7건)

* 사社는 日 수출규제로 폴리이미드 수입지연 → 코트라는 해당 품목 수출 실적을 보유한 9개국 현지 공급처 조사 → 4개국 25개 공급처 발굴 → 우수 3개 공급처 제공

- 국내 기업이 신규 수입처와 선급금 지급 조건 계약 체결 시,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**선급금 미회수 위험 담보 지원**

* 아社는 중국으로부터 불화수소 수입시 수입보험 지원(U$17만, 9.17)

○ **(기술개발)** 신속한 기술개발 추진을 위해 **25개 전략품목** 개발 착수 (추경 650억원)

* 공급기업 26개, 수요기업 14개사가 함께 참여하여 1~5년내 개발 완료



### ② 80대 품목*은 대규모 R&D 집중 투자하고 기술획득 방식을 다양화

* 업종별 밸류체인상 취약 품목이면서 중장기 기술개발이 필요한 품목

○ **(기술개발)** 신속한 R&D 추진을 위해 **1.9조원 규모의 예타면제*** **완료**하고(8.20, 국무회의) 과기부 **사업규모 적정성 검토** 진행중(9월~)

- **R&D 투자전략·혁신대책** 마련하여 개방형, 경쟁형 등 **혁신적인 R&D 방식 도입**(8.8, 고시개정)

○ **(M&A)** M&A 종합 지원을 위한 **해외 M&A·투자 공동지원 협의체*** 구성(9.10), **해외 M&A 설명회**** 개최(9.25, 코트라 주관)

* 총 14개 기관(경제단체 3, 업종별 협회 5, 금융기관 4, 지원기관 2)
** 해외 사모펀드가 보유한 포트폴리오중 선진국 중소기업 36개를 국내 기업에 소개

○ **(세제지원)** 해외 M&A시 법인세 감면*, 해외 전문인력 소득세 감면** 등 '19년 세법 개정 추진 (9.3, '19년 세법 개정안 국회 제출)

* 신성장기술 시설투자 수준(대 5% 중견 7% 중소 10%)으로 인수금액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
** 해외 전문인력 유치시 5년간 최대 70% 소득세 감면(3년 70% + 2년 50%)

○ **(R&D 세액공제)** 고순도 불화수소 기술 등을 **신성장동력·원천기술 R&D* 및 시설투자** 세액공제 대상** 추가(조특법 시행령 개정 '19.下~)

* (R&D 법인세 공제율) 대·중견기업(20%+최대10%), 중소기업(30%+최대10%) 적용
** (시설투자 법인세 공제율) : 대기업(5%), 중견기업(7%), 중소기업(10%)로 적용

○ **(해외 투자유치) 투자유치 타겟기업을 발굴**하여 1:1 기업별 심층 협상, **외투기업 우대(현금지원 비율 확대, 무상임대 등)** 추진

○ **(규제 해소)** 화학물질, 설비 관련 **인허가 기간·절차를 단축***하고 특히 **수급위험 품목 관련 인허가는 최우선 처리**

* (환경부) 화학물질 취급 인허가기간 단축(75일→30일) 등 화관법 고시개정(8.31 시행), (고용부)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기간 단축(54일→30일), 특별연장근로 인가(12개 사업장, 815명)

**주요 성과**

☞ 현재 일본 수출규제로 **직접적 피해를 입은 국내 기업은 없음**

☞ 인허가 기간 단축, 수입품목 신속통관 등 **공공 행정 최우선 지원**

- **기업 현장 애로 65건 접수, 45건 해결**

< 애로유형별 지원현황 >

( )는 완료

| 수급 애로 | | | 기술개발 | 간접피해 | 합계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물량 확보 | 대체처 확보 | 생산설비 확충 | | | |
| 12(10) | 13(9) | 24(17) | 6(1) | 10(8) | 65(45) |
| 금융 지원 | ①금융위 640건 1조 1,891억원, ②중진공 융자금 281건 933억원 | | | | |

☞ **수출규제 3개 품목**은 기본적인 **공급안정 유지**

- **(불산액)** ①中 등 제품 일부 생산공정 투입중, ②국내 공장 신·증설 완공, 향후 정상 가동시 일본산 대체 가능 전망 / **(불화수소가스)** 신규 공장 완공 예정
- **(레지스트)** 유럽산 EUV용 레지스트 생산공정 테스트 진행중
- **(불화 폴리이미드)** 작년부터 국내에서 일부 생산중, 신규 공장 완공 예정

## 2. 소재·부품·장비 산업의 전반적 경쟁력 강화

※ 수요-공급기업間 협력 모델 구축은 별도 안건 보고

○ **(실증양산)** 화학, 금속 등 **5개 핵심분야**의 신뢰성, 실증평가에 필요한 필수 시험·평가 장비 등 **테스트베드 설치·보강**(180억원)

- 소재부품 장비의 **신속한 상용화**를 위한 **신뢰성 평가비용** 지원(220억원), 수요-공급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**성능시험 및 개선** 추진(670억원*)

* 기계산업핵심기술개발(320억원), 반도체디스플레이성능평가지원(350억원)

○ **(투자펀드 조성)** 성장지원펀드 2,000억원(금융위), 중소기업모태조합 출자 600억원(중기부)을 '20년 정부안에 반영

- 기술이전, 공동기술개발, M&A 등 기술도입을 위한 **1,000억원 규모의 GIFT 2호 펀드** 결성 추진(산업부 운용사 선정 계획 공고, 10.7)

○ **(기술특례상장)** 기술력이 우수한 소재·부품기업의 **코스닥 시장 진입 확대**를 위해 상장지원방안 수립 및 시행(9.9)

* 상장심사기간 단축(45일→30일), 1개 평가기관에게 A 등급 받으면 상장 자격 부여(기존 2개)



○ **(기업육성)** 글로벌 전문기업(GTS) 100개 육성을 위해 **소재부품 특별법 개정(안)에 GTS 선정 및 지원 근거 마련**

* 핵심전략기술에 대해 전문 역량을 갖춘 특화선도기업(GTS : Global Top Specialty) 육성

- **강소기업 100개 지정 및 관리방안 마련**(9월)하였으며, 사업 공고(10.10)

**주요 성과**

☞ 추경자금을 신속히 투입하여 개발기술의 조속한 실증·양산 지원

☞ 대규모 펀드 조성, 기술특례상장 요건 완화 등으로 소재·부품기업 자금조달 애로 완화

## 3. 강력한 추진체제를 통한 전방위적 지원

○ **(경쟁력위원회)** 소재·부품·장비 **현안대응 및 중장기 경쟁력 강화 컨트롤타워**로 본격 가동, 협력모델, 규제·제도개선 등 중점 추진

* 경쟁력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(분야별·품목별) 및 특별위원회(특정 현안) 설치

○ **(소재부품장비 특별법)** 특별법 **대상·기능·범위·방식·체계** 등을 **20년 만에 전면개편**하며, 현재의 일몰법을 **상시법化**(9.30, 민주당 당론발의)

* (현행) '소재·부품 **전문기업 등의 육성**에 관한 특별조치법' → (변경) '소재·부품·장비 **산업 경쟁력강화**를 위한 특별조치법'으로 개편

< 특별법 주요 개정방향 >

- 산업육성 **상시법化, 핵심전략품목** 선정 및 **특화선도기업** 집중육성
- **기술개발, 인력양성, 테스트베드, 특화단지** 등 全주기 지원 강화
- **기업 간 협력모델**에 자금, 입지, 규제특례 등 패키지 지원
- 수급안정을 위한 **긴급대응, 경쟁력위원회 및 특별회계** 신설

**주요 성과**

☞ 국가 자원과 역량을 총력 투입할 수 있는 **추진체계·법적기반 확보**

☞ **정부 예산 대폭 확대** 및 신속 투입

- '19년 8,327억원(추경 2,732억원 포함) → **'20년 2조 1,242억원**

☞ 소재·부품·장비 분야 민간 투자 확대

- (효성) '20년부터 탄소섬유 전주공장 추가증설(~'28, 1조원), (현대모비스) '21년 친환경차 부품 양산목표로 울산공장 신설(3천억원 투자)

## Ⅳ. 향후 계획

◇ **금년내** 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**추진체계·법적기반 완비**
◇ 현장중심으로 가시적 성과가 창출되도록 **이행상황 집중점검**
◇ **내년도 사업 준비작업**을 최대한 **금년내 완료**하고 즉시 **집행**

### 1. 경쟁력 강화 추진체계 법적 기반의 완비

○ **(경쟁력위원회)** 협력모델 발굴·지원, 규제 개선 등 본격 가동 추진
- 산업부내 실무 추진단을 조속 설치하고 경쟁력 위원회 활동 중점 지원

○ **(소재부품특별법)**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금년내 법통과를 통해 제도기반 완비

### 2. 현장 중심으로 가시적 성과가 창출되도록 이행상황 집중 점검

○ **(기술개발) 80개+α 핵심품목**을 중심으로 기술개발에 **1.3조원**을 투입하여 신속 착수하고, 소재·부품·장비 **R&D 세액공제 확대**
* 조특법상 신성장동력 R&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('20.1월~)

○ **(다각적 기술확보) M&A**, 해외기술 도입, 투자 유치 등 **핵심기술 보유기업 및 투자 타겟기업 발굴**과 함께 **세제·금융** 등 지원 확대
* 해외M&A 법인세 세액공제, 해외전문인력 소득세 감면(8.29 조특법 개정안 국회제출)

○ **(협력모델) 경쟁력위원회**를 통해 핵심품목 공동 R&D 등 기업간 협력 모델을 발굴·구체화하고, **자금·입지·규제완화** 등 패키지 지원 추진

### 3. 내년도 사업 준비작업을 최대한 금년내 완료하고 즉시 집행

○ **(예산)** 내년도 사업의 효과적 집행을 위해 수요-공급기업간 구매연계 중심의 **사업기획**을 최대한 **금년말까지 완료**하고, **예산배정 즉시 집행**
* 정부전체 소재부품장비 예산 : ('19년) 8,327억원 → ('20년안) 2조 1,242억원

○ **(기업지원) 핵심 품목 분야의 유망 소재·부품·장비기업 육성**을 위한 **강력한 지원체계·방안을** 금년내 마련하고, '20년부터 본격 지원
* 글로벌전문기업 지원근거와 지원내용 등을 소재·부품·장비특별조치법 개정안에 포함

◈ **소재·부품·장비 경쟁력 강화는 제조업 혁신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할 과제로, 민관 공동협력으로 책임감있게 강력 추진**